



⑥

金善慶 譯  
竹村健一 著

譯者：大韓電氣協會 電氣使用合理化 專門委員長

#### IV. 相互 依支하는 社會

##### — 原子力發電立地問題 —

##### 1. 住民을 이용해도 되는가

언제나 어느 경우에도 立地問題는 必須條件이라 할만큼 反對運動은 있게 마련이나 특히 原子力發電所일 때는 한층 그 問題點이 더하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日本人 특유의 核 알레르기 때문이다.

安全하다고 해서 一般人이 이 巨大한 技術을 그리 간단하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최후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問題가 되고 만다. 「電力會社에서 하는 일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와 같은 信賴感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여부에 따른다. 그것은 多分히 宗教的인 양상을 띠고 있다.

南無阿彌陀佛을 信仰으로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南無妙法蓮華經을 說敎한들 받아 들일리가 없다.

어느 한 地點에 原子力發電의 이야기가 대두된다. 그러면 즉시 그 地域에서 反對運動이 일

어난다. 감각할 사이에 對處할 時間도 없다. 立地問題는 거기에서 한발자욱도 前進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한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諦念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原子力發電所는 永遠히 세울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다음 段階까지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立地關係의 電力人들은 每日 힘든 活動을 계속한다.

立地の 첫째 段階는 電力會社가 道나 市郡面이라는 地方自治團體에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나 住民의 大部分은 그 以前에 어떠한 경로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住民에게 알리는 타이밍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결코 빠르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新聞의 記事로 알게 되면 住民들은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 電力會社나 市에 대하여 不信感을 갖고 있는 住民은 굳어져 버린다. 이러한 感情問題로 겨우 이루어진 이야기가 白紙로 되돌아 간 例도 있다.

反對理由에는 核 알레르기에 의한 것,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 心情的·感情的인 것 등 여러 가지이지만 이에 金錢과 政治問題가 뒤엉키면 事態는 매우 복잡화되어 간다. 이들이 미묘하게

열키고 설켜 점차 복잡하게 되어 간다.

그래도 住民에 의한 住民을 위한 反對 運動이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地方住民으로서 가장 不幸하고 지겨운 것은 外部로부터의 侵入者, 소위 外人部隊에 의한 反對運動이다. 그들은 住民을 이용하여 단지 反對를 위한 反對라는 알 수 없는 혼돈속에 住民을 끌어들인다. 住民에 대하여 열리는 說明會나 公聽會를 妨害하거나 망가트리거나, 또는 恐怖感을 야기시키거나 한다. 어느 住民은 말한다.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外部人이 介介하여 휘저어 버린다.」

關西電力 美浜原發 가까이에서 사는 住民의 한 사람인 梅木氏は 建設當時를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6個月間の 보링이 끝나고 이제 原發建設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外部에서 침입하여 反對한다. 住民이 동네의 모든 集會에서 論議를 걸쳐 이야기가 結論이 날만하면 또 外部에서 들어와 反對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放射能 이 發生하기 때문에 農作物도 수확할 수 없고 住居할 수도 없다. 海水도 汚染되므로 고기도 잡을 수 없다. 가령 잡힌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다」라고 宣傳한다. 이리하여 나쁜 소문은 곳 바로 인근에 퍼져 나간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하고 우리들도 反對하였다. 그러나 異常한 것은 推進派가 데려 온 學者는 모두 安全하다고 하고, 反對派가 데려 오는 學者는 危險하다고 한다. 같은 學校에서 배운 學者가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리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모르게 되었다는 住民의 회롱당하는 듯한 모양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이웃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場面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 地域의 경우는 原發이 建設되었으나 「反對派가 말하는 것과 같은 危險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漁民은 漁業權을 포기하여 補償金을 받았다. 그러나 溫排水 때문에 도리어 魚類가 많이 몰린

다는 現象이 생겼다. 그리하여 포기한 場所에서 漁民들은 다시 操業을 하게 되었다. 觀光客도 그곳에 낚시대를 담그게 된다. 물론 고기에는 아무 異常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때는 漁民들은 漁業權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진짜로 漁民들이 反對하고 있으면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觀光客이 준다, 미역이 썩는다, 고기가 오염되어 값이 半으로 떨어진다, 溫排水로 익은 문어가 잡힌다 등 떠들어 본다. 이제 그런 者들의 말을 一切 믿지 않는다」라고 梅木氏は 화가나서 언성을 높이고 있다. 그것은 믿을 가치가 없는 人間을 信用한 自己自身에 대한 노여움 같이 느껴졌다.

## 2. 金錢問題

原發 立地點에는 각기 여러가지 드라마틱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래동안 힘겨운 싸움의 드라마이다.

電力會社로서는 이만큼 골치아픈 難問題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電力會社는 「電力의 安定供給」을 至上命令으로 하고 있어 進涉이 안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原子力은 日本으로서의 代替 에너지의 本命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家의 에너지 政策으로서는 특히 石油 危機以來 原子力이 중요시되어 왔으나 立地問題는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目標値는 해마다 下降 추세에 있다.

政府의 에너지 調整계획에 의하면 原子力이 代替 에너지의 本命이 되어 '85년에 3千萬kW, '90년에는 5千萬kW라는 큰 目標를 세워 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事態의 추이를 보면 計劃의 達成은 위태로운 狀況이다.

原發 立地에 있어서 地方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安全性이나 환경과피에 대한 不安感이다. 그리고 다시 調査하여 보면 電氣는 그의 大部分이 消費地에 보내진다는 것, 發電所가 建設되어도 地方人의 雇用이 적은 것, 관련산업

〈표 3〉 長期 에너지 需給暫定計劃(일본)

項 目	'78年度(實績)		'85年度		'90年度		'95年度	
에너지 절감 前의 需要	4.12億kl		6.62億kl		8.22億kl		9.73億kl	
에너지 절감 率			12.1%		14.8%		17.1%	
에너지 절감 後의 需要			5.82億kl		7.00億kl		8.07億kl	
에너지 別	實 數	構成比 (%)	實 數	構成比 (%)	實 數	構成比 (%)	實 數	構成比 (%)
水 力 { 一般水力	1,810萬kW	4.3	2,200萬kW	4.7	2,600萬kW	4.6	3,000萬kW	4.6
揚 水	805萬kW	0.0	1,950萬kW	4.7	2,700萬kW	4.6	3,350萬kW	4.6
地 熱	15萬kl	0.9	220萬kl	0.4	730萬kl	1.0	1,420萬kl	1.8
國內石油·天然 가스	379萬kl	3.2	800萬kl	1.4	950萬kl	1.4	1,400萬kl	1.7
國 内 石 炭	1,972萬t	2.0	2,000萬t	2.5	2,000萬t	2.0	2,000萬t	1.8
原 子 力	800萬kW	11.6	3,000萬kW	6.7	5,300萬kW	10.9	7,800萬kW	14.3
海 外 石 炭	5,829萬t		10,100萬t	13.6	14,350萬t	15.6	17,800萬t	16.5
(中 一般炭)	(95萬t)		(2,200萬t)		(5,350萬t)		(8,050萬t)	
L N G	839萬t	2.9	2,900萬t	7.2	4,500萬t	9.0	5,000萬t	8.7
新燃料油, 新 에너지, 기타	31萬kl	0.1	520萬kl	0.9	3,850萬kl	5.5	6,100萬kl	7.6
小 計	1.05億kl	25.5	2.16億kl	37.1	3.50億kl	50.0	4.59億kl	56.9
輸 入 石 油	3.07億kl	74.5	3.66億kl	62.9	3.66億kl	50.0	3.66億kl	43.1
(中 LPG)	(739萬t)		(2,00萬t)		(350億kl)		(3.48億kl)	
					(2,600萬t)		(3,300萬t)	
供 給 合 計	44.12億kl	100.0	5.82億kl	100.0	7.16億kl (7.00億kl)	100.0	8.25億kl (8.07億kl)	100.0
供 給-需 要	-		-		1,600萬kl (-)		1,800萬kl (-)	

에의 波及效果가 적은 등 發電所建設은 地方經濟의 發展이나 福祉向上에 연관이 안된다는 不滿 등이 많은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國家는 電力會社에서 販賣電力量에 따라 稅金을 징수하고 이를 發電所周邊의 市道郡面 等に 交付金으로 交付, 地方에 還元하여 發電所建設推進을 하고자 하는 制度, 이른바「電源三法에 의한 交付金制度」를 1974年 10月부터 실시하였다.

電源三法이란 「電源開發促進稅法」「發電用施設周邊地域 整備法」「電源開發促進對策特別會計法」 등이다.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를 통하여 관계 市道郡面에 建設期間中을 통하여 交付金을 낸다는 것이다. 發電所는 운전개시를 하면 關係 市道郡

面에 固定資産稅가 들어가나 건설기간중은 地方에 아무 財政上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交付金의 취지이다. 이는 原子力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火力·水力發電所에도 적용된다.

즉, 交付金制度는 多數派의 電力消費者로부터 稅金을 거둬 少數의 電源立地 關係住民의 희생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서 될 수 있는 限 메릿이나 慰惠를 주어 兩者의 거리감을 메꾸기 위한 制度라 할 수 있다.

交付金의 사용도에 있어서는 公共用 시설에 한정되고 있어 公民館이나 體育館·公園·道路 등에 使用되고 있다. 한편, 電力會社는 發電所建設에 있어 상실되는 漁場漁業權을 漁民으로부터 사 들이는 형태로 漁業보상금을 낸다. 火力·水

력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그러나 電源立地關係住民에게 있어서 一見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交付金이나 補助金은 생각지도 않은 폐해를 초래하는 結果가 되었다. 단순히 核 알레르기를 갖는 住民들로부터는 「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反對派들로부터는 「사람의 生命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라는 反發을 샀다.

三法交付金은 立地點만이 아니라 그 인접지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된다. 거기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웃의 또 이웃 隣接地이다. 「四寸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어대로 「우리한테도 달라. 그렇지 않으면 反對한다」라고 덤벼들게 된다.

즉, 돈의 問題는 아니지만 결국은 돈 問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地方住民의 核알레르기라는 本來의 論點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에서 떨어진 遠隔의 隣接地에도 交付金を 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慾望은 限없이 퍼져 그칠 줄 모르게 된다.

거우 立地問題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建設中에는 反對運動의 여러가지 抵抗을 阻止하고 배제하며 해결을 하여 가면서 工事를 하게 된다. 이 사이에 긴 法廷鬭爭이 있고 裁判이 반복된다.

日本에서의 첫번째 原發裁判은 1973年 8월에 四國電力·伊方原子力發電所建設에 反對하는 地方住民 32名이 國家를 相對로 裁判所에 「原子爐 設置許可」를 取消하도록 起訴한 것이다.

伊方原發訴訟의 焦點은 原子力發電이 安全한가 어떤가를 묻는 “科學技術論”과 原子力基本法, 原子爐等 規制法 등 設置許可의 “根據法”의 違憲性を 다투는 “法律論”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提訴以來 36회에 걸친 口頭변론이 있었고 그 사이에 原告(反對住民)側과 被告(國家)側 双方에서 46名の 科學者가 證人으로 出廷하여 法律論뿐 아니라 科學技術的 見地에서 安全性技術論爭이 전개되었다.

5年을 넘는 訴訟中에 原告 被告 双方이 主張한 주된 內容은 低레벨 放射線의 影響, 想定事

故의 평가, ECCS(緊急爐心 冷却裝置)의 有效性, 大地震對策 등 醫學·土木工程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고 있다. 또 原告·住民側이 學界論爭을 法廷으로 가지고 갔다는 感이 없지도 않았다.

이 裁判에는 다른 科學裁判과는 달리 被害者가 한사람도 有在하지 않았다. 問題의 伊方原發이 營業運轉을 開始한 것은 訴訟을 일으킨 후의 '76年 9月이다. 즉, 이 裁判은 과거의 事實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어서의 被害의 可能性에 대한 論爭이었다. 事實關係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裁判所가 이에 어떠한 判定을 내리는가 하는 意味에서 흥미깊은 것이었다.

伊方裁判은 '78年 前半에 있어서의 에너지 新技術 進歩에 최대의 焦點이었다. 이의 判決 여하에 따라서는 當時 係爭中인 原電·東海二號爐, 東電·福島第二號爐를 둘러싼 2개의 訴訟뿐 아니라 石油危機 以來 심각화하는 에너지 行政의 장래에 있어서도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으로 判決의 行方이 주목되었다.

1978年 4月25日 判決은 내렸다. 「原告들의 請求를 棄却한다」—이 裁判은 被告(國家)側의 壓倒的勝利로 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訴訟의 本來의 目的은 原發을 日本으로부터 追放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반대로 原子力推進을 하기 쉽게 하는 體制를 만들어내는 結果가 되었다. 國家는 安全審査의 內容을 充實하게 함과 동시에 조사원이나 사무국원의 數를 大幅 늘리고 大幅的인 資料를 公開하여 國民의 合意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리하여 이 裁判은 그후 日本의 原子力政策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 것이다.

### 3. 地方住民의 不滿

原發建設에는 地點公表로부터 工事完了까지 平均 大略 15年の 歲月이 필요하다.

그러나 東電·柏崎原發은 1969年の 유치개시

로부터 '85年 運轉開始까지 16년이 걸렸다.

柏崎의 경우 지연이유의 첫째는 地方 情勢의 어려움에 더하여 工事に 着手한 후에 눈으로 인한 氣象條件의 惡影響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16년이나 걸린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된다.

이것에는 手續上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 경과를 더듬어 보면 地點決定으로부터 補償, 電源開發調整審議會까지 5년이 걸리고, 安全審査 工事計劃認可 등의 許認可에 4년이 걸렸으며, 工事期間이 7年으로 되어 있다. 이를 더 短縮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現在 兼任顧問이 대체적인 경우 擔當하고 있는 審査에 專問從事者를 두든가 하나 하나 散發的으로 하고 있는 審査나 許可를 同時에 하든가, 工程管理을 충실하게 하도록 大型機械를 導入, 工事期間을 단축시키든가 또는 國家 電源開發計劃과 自治團體의 許認可를 連動시키든가 하여 建設期間을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

柏崎의 경우 強制性을 띠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될 수 있는 한 住民을 자극하지 않고 온건하게 일을 進行시키려는 關係者의 배려도 있어 생각대로 안된 것 같다.

柏崎에 限하지 않고 反對運動은 어느 地點에서나 해가 갈수록 심하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反對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組織된 그룹에 의한 外人部隊이다. 地方住民은 그러한 外人部隊에 의한 反對運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贊成한다기 보다는 正確히 말하면 反對하지는 않으나... 라는 立場이다. 白이나 黑이나가 아니고 그 中間인 灰色의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 積極的인 贊成者는 全體의 二割程度라고 한다.

그러나 큰 소리로 떠들어 대는 少數派에 대하여 沈默의 多數派는 결코 反論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地方住民이 灰色分子이긴 하나 反對하지는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原發에 대한 理解를 하게 되었다든가 原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點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地域 振興에의

큰 期待感이라고 關係者는 한결같이 말한다.

즉, 電源三法 交付金外에 地域寄與라는 의미로, 工業團地를 만들고 企業유치·地方民雇用을 하여 달라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다.

電源立地地域과 消費地와의 共存共榮이라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要求는 地方住民으로서는 當然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마디로 共存共榮이라고는 하나 관계자나 혹은 外部人들의 말을 여러가지 들어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共存共榮策에는 두가지 큰 問題가 있을 것 같다.

電力消費量이 늘어 現在과 같은 電力會社의 규모가 되면 電氣料金を 댈 수 있는 한 줄이기 위해 發電所를 만들 경우 어떻게 하든지 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다. 規模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 共通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發電所와 共存共榮을 도모하고자 하는 立地 에리어에서 사용하는 電氣의 量은 미미한 것으로서, 그보다도 훨씬 큰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 主된 目的은 巨大한 消費地에 보내기 위해서다.

地方住民으로 보면 가령 이 에리어가 선정되면 그 무엇인가를 要求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보겠다. 그 무엇인가는 原發建設工事中 될 수 있는 한 地方에서 資材를 調達하고 工事に 地方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要求에 대하여 電力會社는 原發建設은 큰 建設會社가 맡고 있으나 어느 原發地域에서는 地方의 土木業者와 조인트·벤처 形式을 취하든가 하여 對應하고 있다.

原發建設은 工事完了後 雇用在 激減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느 關係者는 原子力의 경우 安全管理 때문에 경비원이나 清掃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地方 사람도 고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東電의 福島와 같이 柏崎原發은 7基가 完成하면 常時 1대 내지 2대는 定期檢査를 하여야 하는 狀況이 된다. 福島 第一原發에는 約2千名이 關係되는 일로 常駐하고 있다. 기타 建物の

管理라든가 메인テナンス 業者나 電力會社의 職員이 永住하게 되므로 오히려 安定된 雇用이나 고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혼치가 않은 것 같다.

확실히 적어도 原發이 세워짐으로써 세워지기 前보다는 運轉해진다는 것은 事實일 것이다. 一人當 所得水準이 오르고 生活이 향상된다. 얼마 있으면 그 生活 레벨에 익숙해진다.

즉, 이 레벨에 도달한 후 그 以上 무엇인가를 바라는 慾望은 끝이 없이 계속된다. 이것이 問題點의 하나이다. 어느 住民이 「地方이 財政의 으로 運轉하여지는 것은 當然한 것이고 돈은 짜낼수록 짜낸다」라고 호언할 정도이다.

둘째 問題點은 原發 그 自体에 雇用吸收力이 적다는 것이다.

地方住民의 첫째 要望은 역시 企業 誘致이다. 家族과 서로 헤어져 돈벌이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게 地方의 工場에서 일하고자 하는 強한 要望이다. 近者에 젊은 사람들의 U턴 現象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地方住民의 熱望과는 달리 建設後의 雇用吸收力은 별로 없다.

특히 매우 高度의 機械技術이 集積된 原子力發電에는 人間이 관여할 곳이 없어진다. 즉, 技術集約型이 되고 勞動集約型은 아닌 것이다. 家電이나 自動車産業과 같이 工場에 地方에서 몇百, 몇千名을 雇用한다는 雇用能力은 本來가 없다. 가령 雇用한다 하여도 直接的인 從業員은 매우 高度의 知識이 要求되므로 그 에리어만으로 全部를 조달할 수는 없는 宿命인 것이다.

電力會社의 立地關係者가 立地에 대한 住民의 同意를 얻을 때는 반드시 住民들로부터의 要望 事項은 雇用力이 있는 것을 함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그것은 當然한 要求라 생각된다. 電力會社도 여러 關係會社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電柱를 製造한다든가... 그러나 發電所를 建設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도 될 수 있는 限의 努力은 하고 있으나 우리들 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立地關係의 電力會社員은

一側 企業으로서의 電力會社의 限界를 強調한다.

#### 4. 眞實한 地域開發이 안되는 事情

그러면 電源三法交付金이라는 것이 立地促進을 위하여 電源關係地域이 惠澤을 받도록 실시된 制度라면 이 交付金으로 이러한 要望을 보충시켜줄 수 없을까?

애석한 일이지만 이 制度가 實施된지 7년이 지났으나 雇用促進과는 연결되지 않은 것 같다. 所謂 公共施設이라 불리는 公民館, 集會場, 體育館 등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들이 놀이터, 休息處로서는 必要하겠으나 결코 利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 雇用力도 없다. 이런 現象으로서 前과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는다는 住民의 失望感은 當然하다.

地方住民의 不滿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기껏 住民을 위하여 만들어진 野球場인데 正式競技 以外로는 使用할 수 없다. 이래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不滿을 토로하였다. 練習用으로는 一切 사용할 수가 없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니 雜草가 우거지고 이를 뽑기 위하여 사람을 雇用한다는 아이러니한 現實에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모처럼의 交付金制度도 效果的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즉 交付金の 使用限度가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住民의 要望과 交付金對象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國家가 交付金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電力會社도 企業誘致에 協力하고 있는가를 關係者에게 물어보았으나 현재와 같이 景氣가 침체되고 投資 마인드가 둔화되고 있을 때는 어렵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企業誘致에는 道路·工業用水問題 등과 같은 社會資本의 充實이라는 條件整備가 必要不可缺하다. 그러나 電源立地地域이라는 것은 벽지로서 交通運輸面에서는 條件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企業으로서 進出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

三法交付金으로 原發에 直結되는 周邇의 主要 道路는 잘 憵리게 되나 거기서부터 또는 잘라진 部分의 道路는 旧態依然하기 때문에 一般企業은 대도시로의 物流를 트럭으로 輸送하는 등 역시 條件이 나빠진다. 企業이라는 것은 都市 機能이 미리 集約되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마련인데, 인 프레스트럭처럼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發 電所 에리어에의 企業誘致는 쉬운 일이 아니다.

「工場誘致는 一個 私企業인 電力會社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自治團体나 國家의 指導와 協力 을 받아가며 進行되어야 한다고 부탁하고 싶다」 라고 關係者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즉, 國家의 各部處가 맡는 事業의 年次計劃을 종합적으로 어느 에리어에서 세워 地方의 道知 事, 市長이 工場團地를 만들면 企業誘致는 되므 로 어떻게 해서라도 國家의 豫算을 타서 合理的 인 시스템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提案이다.

그것은 綜合的으로 보았을 때 日本의 地域開 發에도 關聯된다는 意見이다.

具體的으로 어떠한 提案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國家에 「에너지 關係閣僚會議」라는 것이 構成되어 있다. 그것에는 建設·運輸·通產 ·農水產 등의 關係部處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13名の 長官이 關與한다. 會議의 目的은 지금 電力會社에 委任하고 있는 여러가지 電源地點中 에서 國家로서 무엇인가 補助나 措置를 하면 立 地問題는 進涉될 것이다. 또는 지금 가장 問題 가 되고 있는 點이 打開되리라 判斷되었을 때 「要對策 重要電源」으로 指定한다. 指定되면 具 體的으로는 通產省 資源 에너지廳 開發課 電源 立地對策室의 사람들이 現地에 가서 說明하게 된다.

이 指定地域에 대하여는 電力會社를 백업하여 이 發電所計劃은 반드시 완성시킨다고 하는 國 家自体가 國家가 하여야 할 일을 앞장서 하는 형태인 것이다.

現在 原子力地點에서 이러한 指定을 받는 것 은 安全論爭이 심한 곳이다.

原子力の 安全性에 대하여는 「原子爐等規制法」 「原子爐設置法」 등에 의하여 審査되고 國家, 즉



△ 發電所 近海의 미역 채취



首相이 一義的인 責任을 진다.

電力會社가 原子力發電所를 施設하고자 할 때 安全性을 證明하려면 어떠한 手續이 필요한가.

우선 最初에 國家에 대하여 許可申請을 한다. 通産相으로부터 「原子爐等規制法」에 의한 原子爐의 設置許可 및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作物의 設置許可가 필요하다. 電力會社로부터 申請이 있으면 通産省은 原子爐의 安全審査를 하고, 다시 原子力委員會와 原子力安全委員會가 再審査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더블체크라 부르는데, 具體的으로는 現地調査나 公開 히어링에 의하여 地方의 狀況이나 住民의 意見を 듣고 충분히 심사한 후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首相의 同意에 의하여 國家가 허가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여러가지 提案이 現在 고려되고 있다. 安全審査는 國家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法的 制度로 定하여져 있으므로 첫번째 責任을 지는 國家가 安全性을 保證하지 않는 한 說得力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國家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安全性을 강조하여도 당신들 自身이 만드는 것을 危險하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 말하고 있다.」라고 電氣人들은 한결같이 電力會社의 限界點을 力說한다.

다시 提案은 계속된다. 앞에서 말한 「要對策重要電源」으로서 指定하는 機關은 「에너지關係閣僚會議」인데, 그곳에는 各部處의 閣僚가 모두 들어 있으므로 指定된 에리어와 發電所가 共存共榮되도록 하는 施策을 이 會議에서 審議調整하여 事業計劃의 메뉴를 地方에 제시해 달라는 제안이다.

다만, 이와 같은 地域의 綜合計劃·合理的開發이라는 地域開發論은 확실하게 말하여 現在의 國家의 縱的인 制度, 單年度豫算으로는 實現이 어렵다. 中·長期計劃으로, 또한 綜合調整된 事業計劃을 필요로 한다.

提案은 또 있다. 이것은 漁業關係의 問題지만 바다의 埋立工事を 하면 지금까지의 漁場이 작아진다. 그때 조금 떨어진 황폐한 海岸을 人工

的으로 만들면 잃어버린 漁場보다 더 넓은 漁場이 생기지 않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農林水産省에는 「沿岸漁業振興事業法」이라는 것이 있다. 重要電源으로 지정된 장소가 가령 5년전에 계획됐다고 하면 그 계획을 빠르게 하도록 하여 沿岸漁業振興을 도모하여도 될 것이 아닌가.

또는 「工業再配置促進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發電所의 건설과는 關係없고 過密解消·過疎解消로 發想된 法律이다. 東京, 大阪 등의 8大都市는 이제 더 以上 工場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追出地域」과 그 以外는 企業을 환영한다고 하는 「誘導地域」「特別地域」으로 되어 있다. 原發立地地域은 거의 誘導地域이지만 이를 工業再配置 特別誘導地域으로 指定하여 連動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電源立地域이라는 것은 都市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니다. 「地域對策促進法」「沿岸漁業振興事業法」「工業再配置促進法」등 現在 있는 法律이 適用되는 에리어이기 때문에 이들을 連動시켜 가며 長期計劃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提案이다.

勿論 國家로서도 立地促進을 위해 三法交付金 制度를 만들어 原子爐 百萬kW 1基當 45億~60億이라는 巨額의 돈을 自治團體에 支給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問題이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立地條件이나 기타 諸條件이 좋으면 그 市가 雇用力 있는 어느 單獨事業을 일으키려고 하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過去 雇用力이 없는 施設만이 설치된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4年마다 닥쳐오는 選舉 때문이다. 즉, 손쉬운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地域開發論으로 하면 三法交付金を 받으려면 40億, 50億을 念頭に 두고 地域整備計劃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知事가 이를 承認하면 通産相에 申請하고 承認이 되면 그에 의한 돈이 支給된다는 장치로 되어 있다.